

여성 직장불자들의 '수다' 엮들어 볼까요?

"에 아빠가 오
늘 입원했어요. 그렇게
병원에 가라고 등 떠밀었지
만, 그 늙은 고집은 왜 그리도 센
지, 글썽 검사비는 백만 원이 넘고...
숙상해, 병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어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박현남 간사(43·자성
월). '남편은 웬-수!' 라고 목청을 높인다.
국립경향병원 법우회 윤애경 씨(43·보련회)가 박 간사의
말을 받는다.
"그래도 지아비잖아. 딱딱 돈 써, 미워도 내 남편인데."
4월 26일 오후 7시, 한적한 한식당이 술렁인다. 여성 직
장불자들의 '수다'가 시작된 것. 오늘 모인 선수(?)
들은 5명. 박 간사와 윤 씨, 그리고 선재마을의
료희 여오숙 간사(39·수일성), 서울시
방정철청 불교회 원혜랑 씨(34), 감
사원불자회 채혜자 씨(38·
보광명)가 '이야기보따
리'를 챙겨왔다.



여성 직장불자들의 '신행수다' 원혜랑, 여오숙, 윤애경, 채혜자, 박현남(사진 왼쪽부터) 씨가 4월 26일 모처럼 마주앉아 직장 얘기, 사는 얘
기, 신행 얘기 등을 나누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웃고 떠들다 보면 '잘사는 길' 보이죠

제1 라운드. 주제는 '가족을 부처님처럼
여기라.' 반발부터 쏟아진다.
"남편은 할 것 다하고, '애들 목욕시켜' 라
고 명령하면 밉소.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방바
닥 퐁클면서 뻘뻘할 때 알람소."
결혼 8년차 원 씨가 첫 포문을 연다.
"맞아요. T.V. 리모콘 쥐고 이것저것 집안
일 점검하면 짜증나죠. 밤늦게 들어와 밥 차
리라고 하면 달달 부고 싶소." (박현남)
"그래도 남편인데. 스님들은 법문에서 남
편을 부처님처럼 생각하라고 하시던데요?"
(기자)
"부처님은 열 받게 하지 않잖아요. 다 포
용하고 기다리시잖아요. 남편은 안 그래요."
(윤애경)
부부신행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사찰을 찾아 108배를 함께 해요. 한바탕
절을 하고나면 쌓아뒀던 불만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요. 그간 소홀했던 이야기도 솔솔 나
와요. 부부의 종교가 같다는 것도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박현남)
"함께 절에 가자고 하면 '난 종교가 없
어!' 라고 잘라 말하죠. 하지만 절에 가면 물
래 합장을 하더군요. 여성 직장불자들이 남
편은 물론 가족들의 신행을 이끄는 '역군'
이죠." (원혜랑)
제2 라운드. 집에서는 주부로 일터에서는
직장인으로서 겪는 이중고가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신행'으로 푸는지 비법들이
공개된다.
"참 불법(佛法)은 대단해요. 13년간 간호
사로 근무하면서 싫은 사람을 피하려고 해

도 꼭 다시 만나더군요. 처음에는 괴로웠지
만, 지금은 '내가 전생에 그 사람을 많이 괴
롭혔나 보다' 하고 참회하는 계기로 삼고 있
어요." (여오숙)
"사실, 여자들은 직장에서 입방아에 오르
내리면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는 엄청나요.
여성으로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선견견과 싸워야 할 때가 많아요." (원

"부처님오신날 연등을 달려고 그랬죠." (윤
애경)
제3 라운드. 요즘 침체된 경기에 빼듯한
생활비가 화제에 오른다.
"늘 부족하죠. 직장불교회비, 보시금, 애들
교육비 등등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
요. 하지만 보시금 만큼은 반드시 챙겨요. 빠
듯한 생활비에서 미리 보시금을 댈 때 이걸

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아마도 이게 지혜로
운 돈 쓰는 비법이 아닐까요?" (윤애경)
시간은 흘러 2시간 쯤. 수다는 신행경험담
으로 이어진다.
"올해 초,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법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바깥에 다
잡어지고 갈때니, 근심 걱정 다 놓고 가라'
는 말씀은 제가 좀더 간절히 신행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동기가 됐죠." (채혜자)
"전 서울지방청 발령을 받고 경성실에 갈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죄를 지었다 생각하
면 꼭 꿈에서 부처님을 뵈고 가위에 눌러 잠
을 깨거든요. 그런데 어떤 스님이 '완벽한
사람은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충고를 듣고
지금의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기도를
할 때면 뻘뻘한 매들이 풀리는 것처럼 눈물
이 주저없이 흘러내려요." (원혜랑)
"나도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오." (박현남)
"맞아요. 좌복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못
했다면 기도의 참맛을 알 수 없을 거예요."
(여오숙)
여성 직장불자들의 신행담은 아무진 신행
계획으로 옮겨간다. 박 간사는 출근 시간을
활용한 30분 관음정공을 원 씨는 퇴근 후 경
승실에서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진 윤 씨의 당찬 포부. 박수갈
채가 쏟아진다.
"지난 3월 불교대학에 입학했어요. 불교
공부를 착실히 해서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거예요. 그래서 '병원 포교'에 앞장서는 불
자가 될래요."
정리=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제1라운드... 가족을 부처님처럼
함께 정진하며 희망설계하는 도반
- 제2라운드... 주부 직장인의 이중중
스트레스, 참회계기로 삼으면 행복
- 제3라운드... 생활비 그리고 보시금
빠듯하기에 베풀면 기분 더 좋아

혜랑)
"여성 직장불자로서의 신행활동은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상관이 다른 종교를 믿
고 있으면, '너 불자인 거 이는데, 상관인 나
한테 불교냄새를 풍기면 되겠어?'라며 은근
히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묘안을 생
각했죠.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트리를 피
부과에 내걸었죠." (윤애경)
"왜 그랬어요?" (일동)

아들에게 썼으면 하는 생각이 일순 스치
지만, 이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유익하게
쓰일 거라 생각하면 오히려 더 내고 싶어져
요." (박현남)
"맞아요. 보시를 실천하는 대부분의 불자
님들이 이렇게 믿어요. 사실 저도 적은 생활
비 때문에 넉넉히 팔까 주판을 두들겨보지만,
그건 잠깐 뿐이에요. 작은 보시가 큰 자비를
실천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저

우리불자회는요

국립산림과학원 불교연구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넉넉함
에 인간은 언제나 감사함을 느끼니
다. 보답을 하려도 막상 나무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오직 받을 뿐입
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불심에 담
았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이 건강하
게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국립산림
과학원 불자들은 늘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국립산림
과학원 불교연구회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국립산림과학원(舊
임업연구원) 불자들이 상호 친목
을 도모하고, 부처님의 교리를 연



국립산림과학원 불교연구회원들이 2000년 11월 원내 강의실에서 창립법회를 마
치고 기념촬영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신행 모델로
법회·토론회·회보 발간 알차게 가꾸

구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또 인격
을 수양하고 불교전문문화 발전의
기여에 한 몫을 하려고 불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불교연구회 식구들은 총 32
명입니다. 초창기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회원은 국립산림과
학원 직원들과 퇴직한 원로 직원까
지 아우르며, 도반의 정을 쌓아가
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원내에서 법회를 갖
고 불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연구회의 법회 형식은 남다른
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다양한
신행프로그램을 준비해 직원들의
법회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
다. 회보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이나 회보에 게재를 희망하는 내
용이 있으면 이태수 주간(02-
2644-1460)이나 국립산림과학원
불교연구회(02-961-2575)로 연
락해주시시오.
우리 불교연구회는 전문적 특성
을 살린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불
교문화의 전통과 유지발전을 위한

이동홍 총무(목재연구소장)

동송동 전화:(02)732-2403~4 팩스:(02)739-7565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진정한 불자입니다!

【10월 1일】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라.
남의 허물을 전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도 말라.
약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힌다.
(대장엄론경)

- 1월 · 지비와 보시
- 2월 · 선행과 약행
- 3월 ·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 4월 · 중요와 반성
- 5월 · 안내와 노력
- 6월 · 애착과 고통
- 7월 · 애욕과 탐욕
- 8월 · 올바른 삶
- 9월 · 친구와 가정
- 10월 · 거짓말과 말조심
- 11월 · 자유와 행복
- 12월 · 진리와 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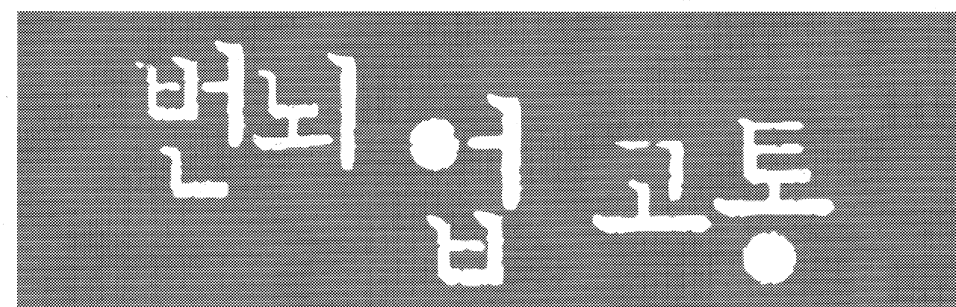
윤창화 엮음
값 7,500원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번뇌와 업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번뇌는 업을 낳고
업(業)은
고통을 낳는다!



정승석 지음(동국대 교수)



민족사 간/신국판/값 8,500원